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 외환시장 교란 불법 외환거래 조사 본격 확대 및 엄정 대응
-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 계획이었던 대응반을 상시화

재정경제부는 '26.6.10(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6.7일(일) 개최된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 및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참석 기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8개사에 대한 외환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으로 들여와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하였다. 범정부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은닉 및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해나갈 예정이다.

대응반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①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및 수출대금 수령 지연, ②변칙 무역결제, ③재산해외도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적발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① 해외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별도 신고 없이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취해야 할 수출대금이 있음에도 허위거래를 통해 그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 ② 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
- ③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아울러 올해 1.15일 출범 당시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 및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이희곤 (044-215-4750) |
| | | 담당자 | 사무관 | 장우진 (wj151@korea.kr) |
| 담당 부서 | 국세청 국제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 민희준 (044-204-3651) |
| | | 담당자 | 서기관 | 이규진 (lkj1203@nts.go.kr) |
| | 관세청 외환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 조한진 (042-781-793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영작 (yjpark86@korea.kr) |
| |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 책임자 | 팀 장 | 임영진 (02-759-5734) |
| | | 담당자 | 과 장 | 신동건 (donggun@bok.or.kr) |
|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 책임자 | 팀 장 | 박운규 (02-3145-7938) |
| | | 담당자 | 수석검사역 | 박윤정 (yoon217@fss.or.kr) |

